



[유통] 이마트 제철 먹거리 해외직소싱 강화



Life

[라이프] 지친 일상 속 재충전 필요할 땐 도심서 '패스트 힐링' L2



# 지방세 체납 '불명예' 1위 오문철... 김우중·전두환 포함

(前 보해저축은행 대표)

(前 대우그룹 회장)

### 지방세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오문철 104.6억으로 가장 많아 명단 공개로 자진 납부 유도할 것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천340억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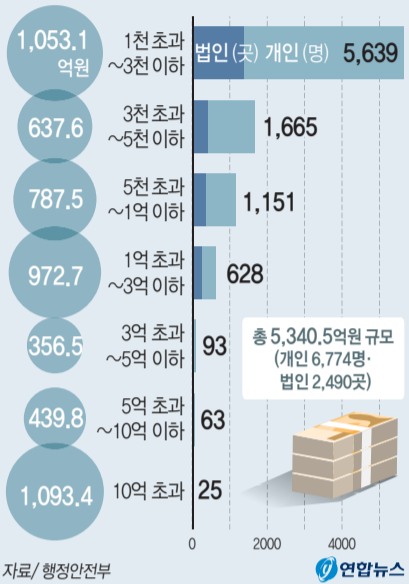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천85명), 체납액의 65.0%(5천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2018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체납액 전체 체납규모(신규)



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700만원으로 1년 새 1천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앤씨(144억2000만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 씨가 세운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59억3000만원의 지방세

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 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의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 이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의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7000만원) 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의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에서 내빈들이 전국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할 각종 생활용품을 상자에 담은 뒤 포스트를 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송영길·유성엽 국회의원, 텔런트 김호진 등이 참석했다.

## 경기도, 대만 로봇기업서 고용창출 성과

### 경기도 화성에 R&D 시설 설립 약속 대규모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이끌어

대만·홍콩·일본을 순회하며 광폭행보 중인 경기도 대표단이 대만 굴지의 로봇기업인 A사로부터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과 투자유치를(투자금액미정)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표단 단장 김진홍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지시각 14일 오전 10시경 대만 중부지역 소재 로봇기업 A사를 방문, A사 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핵심부품 제조는 물론, 로봇이나 자동화기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으로 평평이 나 있다.

이번 협약으로 A사는 경기도 화성에 제조 및 R&D 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정밀요소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원가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

근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A사측이 이번 협약에서 정규직 3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내 특성화고 학생의 우선 채용을 약속했다. 이는 도의 최근 2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유치 규모 중 가장 큰 고용규모이기도 하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00여개 특성화고 가운데 산업연관성이 높은 2개교를 선정, 이번 MOU에 참여케 했다.

A사의 대표는 "경기도내 특성화고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졸업생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이상적으로 매칭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홍 행정2부지사는 "먼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감사를 표명한다. A사가 경기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지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노원 181개·금천 54개... 공원도 '빈익빈 부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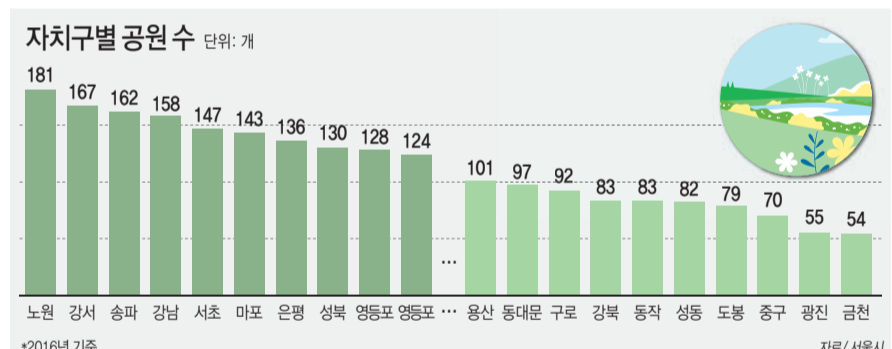
### 노원구, 서울서 공원 가장 많아 강남3구, 최근 3년간 크게 증가

서울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공원 수는 181개로 금천구(54개)보다 약 3.3배 많았다. 또 최근 3년(2013~2016년)간 공원 수가 15개 이상 증가한 지역은 강남 3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공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공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는 노원구(181개)다. 이어 강서구(167개), 송파구(164개), 강남구(158개), 서초구(147개) 순이었다. 금천구는 54개로 공원 수가 가장 적었다. 광진구(55개)와 중구(70개)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가 15.87km<sup>2</sup>로 가장 넓었다. 강북구(14.33km<sup>2</sup>), 노원구(14.16km<sup>2</sup>), 은평구(13.99km<sup>2</sup>), 종로구(11.56km<sup>2</sup>)가 뒤를 이었다.

공원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1.27km<sup>2</sup>)였다. 이어 용산구(1.79km<sup>2</sup>), 금천



구(2.20km<sup>2</sup>) 순으로 공원 면적이 좁았다.

서울의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5m<sup>2</sup>이며,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개의 자치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로 3.4m<sup>2</sup>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종로구는 이보다 21배 더 넓은 71.4m<sup>2</sup>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구별 공원 수를 비교해보면 강남구에는 21

개, 송파구에는 18개, 서초구에는 16개의 공원이 더 조성됐다. 같은 기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던 금천구, 광진구, 중구에는 각각 3개, 0개, 2개의 공원이 더 생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부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공원 등이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는 공원으로 조성될 만한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원 조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 인천시, 야생조류 출현지 소독·방역 강화

### AI 유입 방지 위해 총력 대응

인천시는 최근 러시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에서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서울(중랑천), 경기(포천천)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소규모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공동방제단

(6개반) 운영, 주요 축산시설(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주변 도로 등에 대해 공동방제단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소독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출현지역 입구에 출입



지난 10월 12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실시된 현장방역훈련.

(/인천시)

자제 현수막과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